

광양시티투어, 8월 광역코스 '밤이 되면, 더 빛나는 광양' 운영

오는 22일(금)~24(일) 광주유스퀘어에서 총 3회 출발... '남도한바퀴'서 사전 예약

광양시가 출발지를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한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광양여행가는 날'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운영 계획을 내놨다.

광양시티투어 8월 광역코스는 '밤이 되면, 더 빛나는 광양'을 주제로 낮에는 깊은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저녁에는 찬란한 광양야경을 감상한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하루 1회, 총 3회 운영되는 8월 광역코스는 광주유스퀘어 3번출(오후 1시)을 출발해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산책과 족욕, 아로마테라피 등을 즐긴다.

이러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서 자유롭게 석식을 즐기고, 배알도 섬 정원과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목 가옥 등이 있는 망덕

포구의 야경과 낭만을 만끽한다. 마지막으 최근 경관조명을 완성한 삼화섬으로 이동, 무지개다리, 해오름육교, 이순신대교 등이 연출하는 찬란한 광양만의 야경에 빠진 후 유스퀘어(오후 10시 40분)에 도착한다.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 이용요금은 버스 왕복비와 숲 체험료를 포함해 총 2만 원이며, 금호고속 홈페이지 또는 '남도한바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시티투어 8월 광역코스는 깊고 푸른 마음의 쉽표가 되는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치유 프로그램과 낭만 가득한 섬 정원과 포구에 이어 밤이 더 빛나는 광양의 도심 야경

등 알찬 여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러 "접근성을 높인 광양시티투어 광역코스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광양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브랜드하고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내코스는 에코&아트 힐링투어(월~목), 야경투어(금·토) 등으로 10명 이상 예약 시 운영되며, 투어 3일 전까지 광양시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유선(☎061-763-2201~4)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5천 원, 군인·경로·학생 4천 원, 장애인·미취학아동 3천 원이며,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광양신문 기자



영광군, 군수·간부 수해복구 위해 구슬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이틀간 군수와 실과소 간부들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영광군 전체 피해액은 약 71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군남면은 약 30억 원, 염산면은 약 1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군 전역의 복구를 돕는 동시에,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군남면과 염산면의 농가·주택·마을을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8월 1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읍지연습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영광군이 훈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군은 훈련 취지를 살리면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형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군수와 간부들은 ▲토사 제거 ▲사면 정리 ▲폐기물 운반 등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봉사활동에 군 공무원뿐 아니라 유관기관·민간단체·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심리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은 최근, ▲고군면 두목재 낙석 위험 변법보강(12억 원) ▲진도읍 수유지구 용수로 설치공사(4억 원)를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도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도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군면 두목재 도로 구간'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급경사와 취약한 지반으로 인해 낙석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집중호우 시

진도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

군민 안전·정주 여건 강화 진도군의 강한 의지 보여주는 성과

상시적인 낙석 위험과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왔었다.

특별교부세 12억 원은 해당 구간의 낙석 방지 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데 전액 투입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

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지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진도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이번 사업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진도 군민의 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화순군 -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체결

아동·청소년 위한 '희망나눔운동' 장학 증서 전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4일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과 '희망나눔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학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법인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희망나눔장학금 및 컴퓨터 지원',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장학금',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배양을 위한 ▲'문화체험 및 힐링캠프,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15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매월 각 5만 원씩 2년간 지원되는 장학금 1,800만 원과 3명에게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전달했다. 또한 관내 저

소득층 주민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안 회장은 "희망은 나눌수록 커진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여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따뜻한 사랑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우리군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안 회장을 비롯한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화순군도 소중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며 따뜻한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흥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 '따뜻한 반응 속 호평'

장흥군은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함께 추진 중인 'Fill Care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2025년 중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Fill Care'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통합복지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생계·돌봄·미래 준비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흥군은 지난 5월 9일 월드비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올해에는 청소년 6명, 청년 7명 등 총 13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1인당 2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학원비, 자격증 준비 등 각 가정의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됐으며, 태블릿PC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물품도 함께 제공되었다. 중간점검 결과, 이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대상자들의 일상과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청소년, 청년들이 비로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고,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지원 받은 한 청소년은 "그동안 저와 동생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몸은 힘들어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전했다.

이러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 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용기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제공

보성군, 2025 읍지연습 본격 돌입!

함께 지키는 대한민국! 실전처럼, 위기에도 든든하게!

보성군은 18일 오전 6시 전 직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군청 전시상황실에서 최초 상황보고회를 열어 2025 읍지연습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5년 읍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는 김철우 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시·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읍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범국가적 위기 대응 훈련으로, 민·관·군·경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국가 위기관리와 전시 전환 절차, 국가총력적 수행 능력을 실전처럼 점검한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과 도상연습을 실시해 소관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훈련 목적과 절차를 공유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보성군청 일원에서 적 특작부대의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을 하고, 20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 훈련을 보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2개 읍·면에서 동시 진행한다.

또한, 8월 20일 오후 2시 민방위 대피 훈련에서 공습경보 발생 시 신속 대피, 운전 중 긴급차량 양보, 2시 15분 경계경보 해제 후 대피소 이동 등 실제 상황에 준한 절차를 철저히 훈련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읍지연습은 전시와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민·관·군·경이 함께 실전처럼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